
 들어가며

- 찬송: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 나 무엇과도 주님을
-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식어 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일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 두아디라교회에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
  -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 두아디라교회에 책망하신 내용과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23절)
  - 20.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 21.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 22.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 23.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3. 예수님을 향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까?
4.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26~28절)
  - 26.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 27.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 28.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5. 매일의 삶 속에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의식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속에 은밀히 자라는 이세벨의 꾀임은 없습니까?

 기도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충성된 모습이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도와주소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이세벨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기게 하시고 저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순결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